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6, 중3, 고3 비교를 중심으로*

이 수 진¹⁾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6, 중3, 고3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의 6차년도(2015)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후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과잉기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에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의 과잉간섭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의 영향은 중학생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정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 상이한 연령집단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횡단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및 복지현장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도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입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패널조사

* 본 논문은 이수진의 석사학위논문(2020)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인간발달학회·가정과삶의질학회 온라인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choi0122@hnu.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은지, 유지혜, 2020). 학습 과정보다 학습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이러한 선택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점차 떨어지면서 열등감과 무력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교사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어진다(김태은, 이화진, 오상철, 노원경, 201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나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학업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낮은 편이다.

학업성취는 학습자 능력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주변의 환경 및 학습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부모가 중요한 환경적 조건이 된다.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임선아, 2014). 즉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선희, 2013; 유미영, 홍혜영, 2010; 전은다, 윤기봉, 2016). 또한 정갑순(2002)과 Kim의 연구(1999)에서는 부모가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정적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켜주는데, 이러한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형성은 자존감 향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성취동기를 마련해주며 이는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양귀순, 2017). 캐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Guay, Larose, & Boivin, 2004), 학업적 자존감은 학업성취수준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어린 시절 학업적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학업적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과잉기대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신창환, 이효녕, 김초복, 허재홍, 2018; 오세령, 2014),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태정, 장형심, 2020).

Bronfenbrenner(1979)에 의해 등장한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각 연령대별로 성장과 발달의 특성이 상이하며 개인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가 각 연령대별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초등학생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해나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발달이 가속화된다. 또한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또래관계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미숙, 2015). 학업성취압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많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학습에 몰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모의 태도가 무관심하거나 가부장적일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채슬기, 신호정, 2016).

초등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4, 5, 6학년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요인이 학업요인과 부모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즉 4, 5학년보다 6학년이 가장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규문, 유형근, 권순영, 2012).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자녀들은 학습해야 하는 분량과 학업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녀의 학업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경남(2006)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의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부모의 격려가 필요한데, 특히 심리적 지지가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심리적인 것이 중요해짐으로써 부모는 자녀에게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임금옥(201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기대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과잉간섭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했다. 이 시기에 아동은 독립성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가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과잉기대를 할 때 이것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나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로 구성된 또래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춘기 청소년은 부모의 규칙보다 또래의 규칙을, 의존성보다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나간다. 많은 경우에 또래 규칙은 성인의 규칙과 대립하게 되는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과잉기대를 하게 되면 자녀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이 심해질 수 있다. 또래집단의 규범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학생 자녀들은 또래집단의 규범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지고, 이러한 자녀의 행동은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중학생 시기에 자녀가 부모의 학업성

취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취압력의 환경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필요하다(이선미, 주영아, 2019).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자와 상담자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면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곧 자녀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부모와 공유함으로써 부모가 자연스럽게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도울 수 있게 한다(Bandura, Caprara, Barbaranelli, Regalia, & Scabini, 2011).

고등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시기의 자녀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특별히 대학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만성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불안과 관련된 대처방식이 생활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이유정(2019)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정적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압력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

이 낮아진 반면, 자녀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스스로의 교육적 포부가 높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와 진로 결정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취미 시간 및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길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영향을, 부모의 높은 학력수준과 교육에 대한 기대 정도, 높은 가구소득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예화, 정제영, 2017).

과잉기대는 부모가 자녀가 가진 선천적·후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수준을 요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결과만 강조하며 자녀의 지적인 성취에 지나치게 열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2000). 청소년기는 학업과 진학의 문제가 강조되는 시기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간섭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박선영, 조용주, 2011). 과잉기대는 자녀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과잉기대가 낮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높고,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또한 부모의 과잉기대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부모가 과잉기대를 적게 할수록 긍정적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부모가 과잉기대가 오히려 긍정적 학습습관에 도움이 된다(민동옥, 강한나, 박혜원, 2012). 정소희와 이경희의 연구(2016)

에서는 과잉기대가 공격성, 우울,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과잉간섭과는 달리 과잉기대는 행동보다는 심리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과잉간섭이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 및 제약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자녀의 관심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개인적 측면에까지 관여하여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허묘연, 2000). 과잉간섭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을 통제하고도 우울과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삶의 만족도와 자녀의 자존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의 과잉기대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과잉간섭은 심리적인 기대를 넘어서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 자녀의 행동까지 관여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과잉간섭과 유사한 개념을 찾아보면 행동통제와 과보호라는 개념이 있다. 행동통제는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녀 행동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다(Barber, 2002).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과잉간섭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가 많은 반면, 행동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행동통제가 많을 경우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통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최미경, 민대기, 2015). 민정임과 한세영(2012)

은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행동통제는 공격성을 제외하고 위축과 두려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과잉간섭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인 과보호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보살핌이나 지나친 통제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부모의 과보호가 심할 경우 아동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독립성이 결여되어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의지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열등감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다(Nelsen & Erwin, 2000). 이러한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분노를 유발하고 우울한 자녀의 우울증상을 악화시키며, 특히 모의 과잉통제를 더 많이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Susan, William, Tom, & Wim, 2010). 그러나 과잉간섭과는 달리 과보호는 단순히 보호가 지나친 것뿐만이 아니라 ‘방임’, 더 나아가 ‘무책임’에 가까운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즉, 간섭하는 것 같으면서도 수용적이고, 관심이 과한 것 같으나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말한다는 것에서 과잉간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잉기대와는 달리 과잉간섭은 또래애착, 가족요인, 개인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소

회, 이경희, 2016).

반면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전숙영의 연구(2018)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이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신체화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포함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과잉간섭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Chao와 Myers의 연구(1994)에 따르면, 부모의 과잉간섭은 서양권 아동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동양권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권위적 양육태도가 미국과 호주와는 달리 아시아계의 미국인 청소년과 중국, 홍콩인 자녀에게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Leung, Lau, & Lam, 1998; Steinberg, Lamborn, Darling, Nina, Mounts, & Dornbusch, 1994).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성별 등의 개인요인, 부모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 등의 가족요인,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발달특성에서 성별 차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아의 경우는 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남아는 부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남녀 두 집단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허재홍, 2006).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에서의 수입, 직업, 재산, 거주 지역, 그리고 교육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질과 양, 가정 내에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양식,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으로 반영되어 개인의 발달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eman(1966)은 학업성취의 대표적인 결정요인은 학교 외적요소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였고, 부모의 가계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포함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성은 한 가정의 문화자본으로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과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유지연과 박창순(2015)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높아졌으며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자녀가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성화되어 가정 내 빈곤이 지속될수록 여러 영역에서 아동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장기화된 빈곤은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발달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은 문제행동, 심리적·사회적·정서적 발달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학업성취에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Brooks-Gunn & Duncan, 1997; McLoyd, 1998).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학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 가계소득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대학진학 확률도 높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자녀가 공통된 기대 학력을 매개로 할 때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청소년의 빈곤경험은 학습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방하남, 김기현, 2001; 방하남, 김기현, 2002).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기대교육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례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지는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재훈, 김경근, 2007).

교사와 학생 관계는 교사가 학생에게 유·무형의 것들을 제공하며 함께 공유하는 심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이 학생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려면 이 공간에서는 학생의 어떠한 말이나 생각도 교사에게 충분

히 수용되고 격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학생이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도 높아질 것이다(박선심, 2004). 반면 학생이 교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충분히 지지 받는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환경을 지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관련 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진다(김정화, 김언주, 2006). 박은진(2011)의 교사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태도 하위 영역 중 인성 영역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인성이 아동의 학업성취 동기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유아는 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 주는 사람과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유대 관계는 내적 작동 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관계를 보는 틀의 안정성은 교사와 학생의 심리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학생의 학교적응 및 다양한 학교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478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수용·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 교사를 대할 때에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교사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학교 적응을 보다 잘하게 되어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숙현, 2009).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하, 초6, 중3, 고3)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기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년은 대체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이 시기는 생애발달단계 중 신체적·정신적인 변화, 즉 급속한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는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과 정체성 혼란 때문에 많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발달상 주어진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더불어 사회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6, 중3, 고3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입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전환 과정에 속한 연령으로, 학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행된 부모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양육태도 중 독립변인으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만을 따로 구분한 연구보다는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영역으로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6, 중3, 고3 대상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3개의 패널인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중학교 1학년 패널(이하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을 각각 표집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개년 동안 개인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 등을 매해 1회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총 7,071명)으로 반복 조사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조사대상과 학교 선정방법은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로 표본 수 할당 후 16개의 광역시도 및 도시 규모 교차 후 추출된 27개의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제1차(2010) 조사 완료된 원표본은 7,071명으로 초1패널 98학급 2,342명, 초4패널 95학급 2,378명, 중1패널 78학급 2,35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본 연구는 초1패널의 6차년도 데이터, 초4패널의 6차년도 데이터, 중1패널의 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시점에서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이한 연령집단 간에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초1패널의 대상자는 6차년도(2015)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시점이고, 초4패널은 중학교 3학년, 중1패널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시기로 특정한 시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특성을 비교, 관찰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자로 삼았다.

초1패널은 2,342명의 1차년도 연구대상 중 연락두절, 조사 거부 등의 기타이유로 6차년도에서 275명이 누락된 2,067명(전체의 88.3%), 초4패널은 2,378명 중 6차년도에 317명이 제외된 2,061명(전체의 86.7%), 중1패널은 2,351명 중 6차년도에 295명이 누락된 2,056명(전체의 87.5%)의 대상자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 수 2,067명 중 남자는 1,066명(52%), 여자는 1,001명(48%)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 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이 857명(43%)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777명(39%)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모 학력은 고졸이하가 901명(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졸이상은 638명(3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중간계층이 1,141명(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	범주	사례 수(%)		
		초 6 ($n = 2,067$)	중 3 ($n = 2,061$)	고 3 ($n = 2,056$)
성별	남자	1,066(52%)	1,091(53%)	1,041(51%)
	여자	1,001(48%)	970(47%)	1,015(49%)
부 학력	고졸이하	777(39%)	782(41%)	817(45%)
	전문대졸	370(18%)	202(11%)	179(10%)
	대졸이상	857(43%)	925(48%)	801(45%)
모 학력	고졸이하	901(45%)	918(47%)	1,023(56%)
	전문대졸	479(24%)	293(15%)	211(11%)
	대졸이상	638(32%)	727(38%)	602(33%)
소득계층	하위계층	431(21%)	480(24%)	536(28%)
	중간계층	1,141(56%)	1,121(57%)	972(51%)
	상위계층	473(23%)	380(19%)	390(21%)

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각각 473명(23%)과 431명(21%)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 2,061명 중 남자는 1,091명(53%), 여자는 970명(47%)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 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이 925명(48%)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782명(41%), 전문대졸이 202명(11%)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모 학력은 고졸이하가 918명(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졸이상은 727명(38%)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중간계층이 1,121명(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이 각각 480명(24%)과 380명(19%)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 2,056명 중 남자는 1,041명(51%), 여자는 1,015명(49%)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 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모두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고졸이하가 81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801명(45%), 전문대졸이 179명(10%)이었다. 모 학력은 고졸이하가 1,023명(56%)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과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졸이상은 602명(3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중간계층이 972명(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하위계층은 536명(28%)과 상위계층은 390명(21%)으로 나타나 세 개의 학교급 모두 인구학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 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이며 독립변수는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 간섭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부모의 과잉기대. 본 연구에서 과잉간섭과 과잉기대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과잉기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허묘연(2000)의 척도 중 6차년도(2015년)에 측정된 과잉기대 4문항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낮은 문항,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

표 2. 과잉기대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내용	Cronbach's α		
		초6	중3	고3
과잉 기대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지 않다*	.65	.71	.68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 하신다*			

으면 좋겠다'를 제외한 나머지 3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인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기 위해 *로 표시된 문항들은 역코딩 하였다(표 2 참조).

부모의 과잉간섭. 과잉간섭은 부모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를 말한다. 허묘연(2000)의 척도 중 6차년도(2015년)에 측정된 과잉간섭 4문항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낮은 문항,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걸 강조하신다'를 제외한 나머지 3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인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기 위해 *로 표시된 문항들은 역코딩 하였다(표 3 참조).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KCYPS에서 조사된 교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과목들은 모

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교과목이며,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 모두 중점을 두는 과목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난 학기(2015년 1학기) 동안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교과목별로 '매우 잘했다(1점)', '잘한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못한 편이다(4점)', '매우 못했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성적'으로 정의하고,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1, 초4, 중1 패널의 6차년도(2015)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 성별(남자 = 1)은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여자집단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소득계층은 선행연구(정소희, 이경희, 2016)를

표 3. 과잉간섭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내용	Cronbach's α		
		초6	중3	고3
과잉 간섭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68	.72	.72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표 4. 교사와의 관계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내용	Cronbach's α		
		초6	중3	고3
교사와의 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86	.87	.85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 뵈고 싶다*			

참고로 하여 2015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비 1.5 이하(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는 하위계층으로, 1.5~3.0(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 300% 이하)은 중간계층으로, 3.0 초과(최저생계비 300% 초과)는 상위계층으로 분류한 다음 하위계층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 문항내용은 학교적응 조사영역 중 민병수(1991: 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가 제작한 초등학교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Likert 4점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로 표시된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4 참조).

3. 분석방법

연구문제의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21.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

증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위한 내적합치도 산출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후에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 소득계층 등의 명목척도를 제외하고 그 외 변수들은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각의 그룹 모두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중 중3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r = .74, p < .01$), 그 다음으로는 고3($r = .72, p <$

표 5. 변수 간의 상관관계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업 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부 학력	모 학력
초 6 (n = 2,067)	과잉기대	1					
	과잉간섭	.64**	1				
	학업성취	-.00	-.08**	1			
	교사와의 관계	.01	-.05*	.23**	1		
	부 학력	-.08**	-.09**	.13**	.05*	1	
	모 학력	-.02	-.02	.11***	.03	.45**	1
중 3 (n = 2,061)	과잉기대	1					
	과잉간섭	.74**	1				
	학업성취	.04	-.07**	1			
	교사와의 관계	.04	-.07**	.22**	1		
	부 학력	.01	-.03	.26**	.02	1	
	모 학력	.01	-.02	.25**	.06*	.73**	1
고 3 (n = 2,056)	과잉기대	1					
	과잉간섭	.72**	1				
	학업성취	.00	-.08**	1			
	교사와의 관계	-.03	-.11**	.14**	1		
	부 학력	.05*	.00	.16**	-.04	1	
	모 학력	.04	-.04	.17**	-.01	.72**	1

* $p < .05$. ** $p < .01$. *** $p < .001$.

.01), 초6($r = .64$, $p < .01$)순으로 나타났다. 초6, 중3, 고3 모두 부모의 과잉기대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과잉간섭은 각 학년 모두 학업성취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성취도는 교사와의 관계, 부 학력, 모 학력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초6, 중3, 고3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요인을 투입하였으며,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인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투입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산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6의 경우 분산팽창계수 1.0~2.02, 공차한계 값은 .50~.99, 중3은 분산팽창계수 1.04~2.50, 공차한계 값 .40~.97, 고3은 분산팽창계수 1.03~2.39, 공차한계 값은 .41~.96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초6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성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요인을 포함한 모형 1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2.14, p < .001$), 설명력은 9%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추가한 모형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9.20, p < .001$), 설명력은 9.6%로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하여 0.7% 증가하였고, R^2 의 증가량에 대한 F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text{ change} = 6.88,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 학력 중 전문대졸($\beta = .08, p < .01$)과 대졸이상($\beta = .11, p < .001$), 중위소득계층($\beta = .10, p < .01$)과 상위소득계층($\beta = .12, p < .001$), 교사와의 관계($\beta = .21, p < .001$)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된 변인인 과잉기대($\beta = .06, p < .05$)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과잉간섭($\beta = -.10, p < .001$)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형 1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29.45, p < .001$), 설명량은 11.8%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추가한 모형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26.17, p < .001$), 설명력은 12.9%로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하여 1.2% 증가하였고, R^2 의 증가량에 대한 F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text{ change} = 11.64,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 학력 중 대졸이상($\beta = .13, p < .001$), 모 학력 중 전문대졸($\beta = .07, p < .05$)과 대졸이상($\beta = .08, p < .05$), 중위소득계층($\beta = .12, p < .001$)과 상위소득계층($\beta = .14, p < .001$), 교사와의 관계($\beta = .20, p < .001$)가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된 변인인 과잉기대($\beta = .13, p < .001$)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과잉간섭($\beta = -.12, p < .001$)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형 1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 = 13.19, p < .001$) 설명량은 6.5%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추가한 모형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 11.13, p < .001$), 설명력은 6.9%로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하여 0.3% 증가하였지만, R^2 의 증가량에 대한 F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과잉

표 6.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학업성취도					
		초 6		중 3		고 3	
		모형1 β (S.E.)	모형2 β (S.E.)	모형1 β (S.E.)	모형2 β (S.E.)	모형1 β (S.E.)	모형2 β (S.E.)
개인요인	성별 ¹⁾	.01(.10)	.01(.10)	-.03(.13)	-.03(.13)	-.08(.11) ^{**}	-.09(.11)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학력 ²⁾						
	전문대졸	-.02(.15)	-.02(.15)	.02(.26)	.02(.26)	.06(.22) [*]	.06(.22) [*]
	대졸이상	.06(.14)	.06(.14)	.14(.20) ^{***}	.13(.20) ^{***}	.06(.17)	.06(.17)
	전문대졸	.07(.14) ^{**}	.08(.14) ^{**}	.07(.22) [*]	.07(.22) [*]	.00(.20)	.01(.20)
	대졸이상	.11(.15) ^{***}	.11(.15) ^{***}	.08(.21) [*]	.08(.21) [*]	.08(.18) [*]	.08(.18)
소득계층 ³⁾	중위계층	.09(.14) ^{**}	.10(.14) ^{**}	.13(.18) ^{***}	.12(.18) ^{***}	.08(.15) [*]	.07(.15) [*]
	상위계층	.12(.16) ^{***}	.12(.16) ^{***}	.14(.23) ^{***}	.14(.23) ^{***}	.15(.18) ^{***}	.14(.18) ^{***}
교사요인	교사와의 관계	.21(.02) ^{***}	.21(.02) ^{***}	.21(.02) ^{***}	.20(.02) ^{***}	.16(.02) ^{***}	.15(.02) ^{***}
부모양육태도	과잉기대		.06(.02) [*]		.13(.04) ^{***}		.06(.04)
	과잉간섭		-.10(.03) ^{***}		-.12(.04) ^{***}		-.07(.04) [*]
F		22.14 ^{***}	19.20 ^{***}	29.45 ^{***}	26.17 ^{***}	13.19 ^{***}	11.13 ^{***}
R^2 (수정된 R^2)		.090(.085)	.096(.091)	.118(.114)	.129(.125)	.065(.060)	.069(.062)
R^2 변화량			.007		.012		.003

주. 1) 성별은 여자가 참조집단임. 2) 부학력과 모학력은 고졸이하가 참조집단임. 3) 소득계층은 하위계층이 참조집단임.

* $p < .05$. ** $p < .01$. *** $p < .001$.

기대는 고3을 제외하고, 초6과 중3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과잉간섭은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6,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와의 관계 변인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초1패널, 초4패널, 중1패널의 6차년도(2015)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과잉기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정갑순(2002)과 Kim(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부모의 과잉기대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학습습관을 형성시키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김현주의 연구(2015)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과잉기대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포함되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많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진아, 2016; 신창환 외, 2018; 한현숙, 2021).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과잉기대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구혜영 2006; 오세령, 2014), 대학입시 및 취업으로 인한 진로결정문제로 이미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영향을 미친 이유로 문화적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반면 독립성이 강한 서양권 청소년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Chao & Myers, 1994).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중학교 3학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중학생 자녀의 발달특성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사춘기’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가장 급변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속한 아동은 또래친구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원하는 반면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독립과 무관심을 바라는 동시에 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원하는 사춘기 아동의 양가감정을 보이는 중학생의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속한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과잉간섭은 과잉기대와는 달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두에게 부적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간섭이 우울과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적 정서에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정소희와 이경희(2016)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간섭이 적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한 유미영과 홍혜영(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모든 학년에서 과잉간섭이 부적영향을 미친 이유는 과잉간섭은 청소년이 인식하기에 과잉기대보다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여 청소년의 발달과정상 중요한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청소년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통제변인을 각각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서 상위계층의 가정 이, 세 번째로는 모 학력 중에서 대졸이상의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과 마찬가지로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상위계층의 가정 이 세 번째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부 대졸이상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상위계층의 가정 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교사와의 관계는 모든 학교급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상위계층의 가정 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방하남, 김기현, 2002),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지지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영은, 엄명용, 2018).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외 등 학습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이 과잉기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초6과 중3의 학교급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잉기대와는 달리 과잉간섭은 모든 학교급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기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기대치인 반면 과잉간섭은 자녀에게 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부모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듯한 행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특히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에게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이 커지는 시기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은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의 과업인 자율성과 심리적 독립을 위해 발달시기에 맞는 부모의 양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외에 교사요인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자녀의 학업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박지윤, 박용한, 2019). 비록 불안정한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하는 청소년일지라도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허묘연(2000)의 척도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4개 문항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낮은 1개의 문항을 제외한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이에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문항 수가 적어 독립변인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특히 초등학생은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의 문항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혼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인 교사와의 관계가 독립변수인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앞서 제시한 제한점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패널데이터 사용의 한계로 인해 학업성취도를 성적점수가 아닌 교과목별로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못한 편이다’, ‘매우 못했다’의 과목별 주관적 평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자료를 주관적 평가점수가 아닌 객관적인 점수를 사용한다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자료의 연구방법 중 특정연령집단의 특성과 성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구한 종단연구는 많으나 특정시점에서 상이한 연령집단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횡단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 연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

생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특정시점에서 각 대상자별로 살펴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최근 저출산 등으로 두 자녀 이하 혹은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 행동적으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학업성취는 자녀의 학습태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과잉간섭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민감한 사춘기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와 관심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전달된다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업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장발달시기에 당면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부모교육이나 부모대상의 자녀 학습상담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학습을 지도하는데 있어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개념을 구분하고,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및 복지현장 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도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입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5).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783-793.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구혜영 (200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화합도가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규문, 유형근, 권순영 (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부모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연구*, 24(1), 1-22.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교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영은, 엄명용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5-30.
- 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 간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3), 251-259.
- 김정화, 김언주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 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93-115.
-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

- 계. 상담학연구, 17(20), 303-326.
- 김태은, 이화진, 오상철, 노원경 (2012).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분석. 교육심리연구, 26(2), 505-521.
- 김태정, 장형심 (2020). 부모의 설명제공 및 과잉간섭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학업태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21-140.
- 김현주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희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1-21.
- 민동옥, 강한나, 박혜원 (2012).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습습관 간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3(2), 65-79.
- 민정임,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17-137.
- 박선심 (2004).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학생 관계에 따른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조용주 (2011).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계: 부모의 방치, 학대, 과잉기대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8(10), 35-63.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박은진 (2011). 부모 양육태도 및 교사 태도와 아동 성취동기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 박용한 (2019).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격 5요인 및 사회적 지지와 온·오프라인 도움요청,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31(3), 527-553.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방하남,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사회불안. 스트레스연구, 18(1), 19-2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신창환, 이효녕, 김초복, 허재홍 (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2), 155-171.
- 양귀순 (2017). 초등학교 시기 가정배경이 자존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43-362.
- 오세령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영, 홍혜영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

- 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4(4), 915-937.
- 유지연, 박창순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1), 123-139.
- 이경남 (200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61-174.
- 이선미, 주영아 (2019). 부모학업성취압력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0(2), 331-346.
- 이유정 (2019).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지, 유지혜 (2020). 중·고등학교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간 종단적 인과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555-575.
- 이재훈, 김정근 (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임금옥 (2017).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적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2), 251-274.
- 임선아 (2014). (구조관계모형 검증을 통한)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73-93.
- 전숙영 (2018). 부모의 과잉기대·간섭과 청소년의 신체화증상: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1), 55- 67.
- 전은다, 윤기봉 (2016).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행동, 교육지원활동 및 도움인식정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2), 85-104.
- 정갑순 (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13-342.
- 정예화, 정제영 (2017).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1-20.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슬기, 신호정 (2016).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3(3), 615-632.
- 최미경, 민대기 (2015).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4), 363-373.
- 최숙현 (2009).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 *한국예술치료학*

- 회지, 9(2), 181-211.
- 한현숙 (2021).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93-611.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Regalia, C., & Scabini, E. (2011). Impact of family efficacy beliefs on quality of family functioning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Applied Psychology*, 60(3), 421-448.
- Barber, B. K.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Chao, L., & Myers, R. H. (1994). The first Chinese democracy: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1986-1994. *Asian Survey*, 34(3), 213-230.
- Coleman, J.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Y: Arno Press.
- Guay, F., Larose, S., & Boivin, M. (2004). Academic self-concept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A ten-year longitudinal study. *Self and Identity*, 3(1), 53-68.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19.
- Leung, K., Lau, S., & Lam, W. L. (1998).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cultur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4(2), 157-172.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Nelse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Roseville, CA: Prima Publishing.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Nina, S.,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 Susan, J. T. B., William, W. H., Tom, F., & Wim, H. J. M. (201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6), 751-763.

1 차원고접수 : 2021. 01. 09.

수정원고접수 : 2021. 02. 25.

최종게재결정 : 2021. 03. 25.

The Effect of Parental Over-Expectation and Over-Interference on Child's Academic Achievement: A Comparis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ee, Sujin

Dept. of Counseling,

Hannam University

Choi, Jiyoung

Dept.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parental over-expectation and over-interference affect child's academic achievement and to examin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tudy participant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This study used the 6th year data of the 1st and 4th grade elementary and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panels among the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over-expectation positively affected child's academic achievement for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parental over-interference negatively affected child's academic achievement for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3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influence of parental over-expectation and over-interference was the highest in the middle school group, a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was the most dominant factor that affected the academic performance of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3r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d a cross-sectional research method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different age groups at a specific tim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to develop and provide effective intervention services for parents and children who are in conflict with parental over-expectation and over-interference in the field of counseling field as well as education and welfare sites such as schools, social welfare centers, and local children's centers.

Keywords: over-expectation, over-interference, child's academic achievement,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panel survey